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동신대에 기계설비 인재양성 지원금 1천만원 전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동신대학교에 기계설비 분야 인재 양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동신대는 지난 15일 학교 중앙도서관 세미나1실에서 ‘2025 기계설비분야 기술자 양성 활성화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동신대 이주희 총장, 송경웅 대외협력부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조인호 회장, 허용주 수석부회장, 전상철 광주시·전남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난해 동신대학교와 기계설비 분야 인재양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3000만원의 지원금을 약정했으며 지난해 1000만원 기부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지원금을 전달했다. 동신대는 협회의 지원금을 건축공학과와 소방안전학과 등 관련 학과 교육환경 개선, 장학금 등 우수 인재 양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건축물의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매년 전국의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이 지난 15일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세미나1실에서 이주희 동신대 총장에게 기계설비 분야 인재 양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동신대 제공

대학과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전국 9개 대학을 대상으로 총 1억원 규모의 기술자 양성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미래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취업률이 높은 국가기술 자격 10개 중 8개가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일 정도로 기계설비 산업 분야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 비전이 큰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앞

으로 대학과 협회가 많은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교과과정을 잘 운영해가고 기계설비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광주·전남도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많은 학생들이 기계설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여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최동한 기자



광주대 호심기념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광주대학교 호심기념도서관은 지난 10일 도서관 1층 호심스터디라운지에서 ‘2025학년도 호심기념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사진)

이번 박람회는 광주대 구성원의 스마트한 학술 정보 활용 능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전자정보 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DBpia, KISS, e-article, 스크라, KRpia, EBSCO 등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 업체들이 교육 부스를 운영하며, 이용 방법과 학습 노하우를 안내했다. 또 디지털 잡지 플랫폼인 ‘모아진’과 온라인 강좌 ‘에듀윌, 국가기술자격증’ 등 실생활과 학업에 유용한 전자 자원들도 함께 소개됐다.

이날 행사에는 약 16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전자정보 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으며, 부스별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최동한 기자



나주소방, 다보사 화재예방 안전 점검

나주소방은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난 15일 나주 소재 전통사찰 다보사를 방문해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날 점검에는 신항식 나주소방사장을 비롯해 5명의 소방관계자가 참여했으며, 만민 주지스님 등 사찰 관계자들을 만나 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옥외소화전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사찰 내 소화기와 전기·가스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신항식 서장은 “전통사찰은 산림과 인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꾸준한 훈련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준명 기자



전대성 1전비 준위, 조혈모세포 기증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 소속 준위가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며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사진)

15일 1전비에 따르면 항공기정비대대 소속 정비반장 전대성 준위는 이날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유전자형이 일치한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전 준위는 지난 2011년 조혈모세포를 포함한 장기기증을 서약한 이후 오랜 시간 기증을 기다려왔다.

마침내 올해 1월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를 만나게 됐고, 기증을 위해 꾸준히 건강 관리를 이어온 끝에 최근 정밀검사를 거쳐 기증을 확정지었다.

올해로 근속 30주년을 맞은 전 준위는 항공기 정비 분야에 오랜 시간 몸담으며 58차례의 헌혈로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으로부터 헌혈 금장을 수여받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해왔다. 윤준명 기자



광주 동부소방, 원각사 화재예방 현장점검

광주 동부소방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난 15일 동구 중앙로에 위치한 전통사찰 원각사를 방문해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방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점검에는 문희준 동부소방서장이 직접 참여해 사찰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특히 부처님오신날 행사 기간 동안 촛불과 연등, 전기설비 사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 및 유지 관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안전지도도 병행했다.

문희준 동부소방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부처님오신날을 보낼 수 있도록 사찰 관계자들과 협력해 철저한 화재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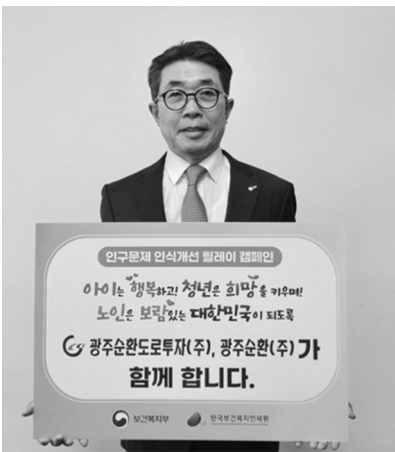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광주순환(주) (대표이사 이영훈)는 1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사진)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해양에너지와 신한은행 호남본부를 지목하며, 동참을 요청했다.

이영훈 대표이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순환도로(소태·송암영입



소)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MKIF)가 투자한 회사로 ESG 경영 방침에 따라 맥쿼리가 투자한 20개 법인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이근배 전남대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이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사진)

16일 전남대에 따르면 이근배 총장은 지난 15일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인구감소와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참여는 지난 10일 강기정 광주 시장이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다음 주자로 이근배 총장을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이근배 총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모

두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특히 지방소멸과 깊이 연결된 인구문제에 대해 전남대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논의와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근배 총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김춘성 조선대 총장과 정기명 여수 시장을 지목하며, 캠페인의 의미와 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대는 앞으로도 인구, 교육, 지역 발전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동한 기자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청소년 마약 예방 앞장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함께한걸음센터와 청소년 마약 예방 등 지역사회 마약류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최근 전국적인 청소년 마약류 범죄 증가추세에 따라 전남지역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마약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 2기 출범과 함께 찾아가는 청소년 마약 예방 현장교육과 현장에서 마약 물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안전용품(G-check) 800여 개를 구입해 지급하는

등 도박·마약 등 청소년 중독범죄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 2024년 순천에 개소한 식약청 산하 국가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함께한걸음센터와 △아동,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협력 △학교, 기업, 지역사회 대상 마약류 인식개선을 위한 협력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예방 정책 수립에 관한 공동 연구 개발 협력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청소년과 학부모 등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을 합동으로 개최하는 등 협력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